

CNOOC, 캐나다 Nexen 인수 임박

17조원에 캐나다 정부 승인 ... 중국이 인수한 외국기업 중 최대규모

중국 CNOOC가 151억달러 상당의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승인받았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인수한 외국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블룸버그가 12월8일 보도했다.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의 왕이린(王宜林) 이사장은 12월8일 캐나다 정부가 Nexen을 151억달러(약 17조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앨버타의 Calgary 소재 Nexen은 캐나다 최대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해 버자르 해양 유전에도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해왔다.

왕이린 이사장은 “Nexen 인수에도 본사가 계속 캘거리에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OOC는 2005년 미국 석유기업 UNOCOL을 185억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며 봉쇄해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도 CNOOC의 Nexen 인수를 확인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캐나다의) 오일샌드 프로젝트가 더는 외국 국영기업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의 자동차부품 생산기업도 미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 인수전 참여를 허용받아 해당부문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소식통들이 12월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중국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Wanxiang(萬向)이 A123 지분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워싱턴의 승인을 받았으며, A123도 Wanxiang의 인수전 참여를 확인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에서는 미국정부 지원을 받으며 방산 비즈니스도 추진해 온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 A123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대 견해가 강하게 제기돼왔다.

소식통들은 Wanxiang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림돌을 제거했다면서 12월6일 시작된 2억6900만달러 상당의 인수전에 미국의 Johnson Controls과 일본 NEC 및 독일의 Siemens도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A123이 미국 국방부와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은 인수전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졌으며, 다른 부문도 인수 대상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어떤 부문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Wanxiang이 A123 지분을 인수받으려면 미국 파산 법원과 미국 정부 산하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도 받아야 한다.

A123은 10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5000만달러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A123은 지분 매각으로 확보되는 자금으로 빚을 갚을 계획이다. A123은 파산 보호 신청 당시 3억7600만달러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A123은 General Motors와 BMW 및 미국 국방부 등에 납품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0>